

임실봉황인재학당 불타는 학구열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내일부터 주말반 운영... 내신성적 향상 기대

올해 초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이 불타는 학구열을 뽐내고 있다. 19일 임실봉황인재학당에 따르면 학당 개원 이후 처음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 학생들의 공부열기가 크게 달아오르면서 주말반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봉황인재학당은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21일부터 인문계와 특목고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해 주말반을 운영한다. 고입시험이 내신제로 전환하면서 중학교 내신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려 우수학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올해 초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이 불타는 학구열을 뽐내고 있다.

이번 내신대비 주말반은 국어, 영어, 수학 학습만으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어려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요소를 해소 위한 차원에서 운영된다. 또한 평일 외에도 학생들의 휴일 학습 습관을 키워 면학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말반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21일부터 2주 동안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국·영·수는 물론이고 과학, 역사를 포함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이론 및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을 선도할 미래인재교육의 산실로서 지난 1월 봉

황로 301 번지 옛 기술센터 자리에 개원했다. 군비 45억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봉황인재학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93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9개 강의실, 세미나실, 조리실 및 식당, 휴게실 등의 맞춤형 최신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방과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인근 도시에서 맹활약 중인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국·영·수를 총 3시간 집중 교육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학생들의 이해속도와 개별적인 특징에 맞는 교육방식으

로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버스 2대와 택시 2대를 이용한 안전한 통학서비스 지원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직영 4찬 급식은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심민 이사장은 "학당을 다닌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간고사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말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도시 못지않은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세분화된 수준별 학습으로 학습 습관을 배양하고 아이들의 학습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앙초 후문 교통사고 원천 차단 조치

순창군, 신호등 1식 ·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

순창군이 중앙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신호등 1식과 과속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공식 착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초등학교 후문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주로 사용하는 도로임과 동시에 중앙로와 연결되어 있어 읍내에서 전주와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군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교통사고 위험 대책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군비와 도비를 포함 1억 9천여만원을 확보해 사업 착공에 나섰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6월 안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관내 3개 지역에 신호와 과속단속이 가능한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 원천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5월 중 착공에 들어가는 지역은 순창읍 신남리 337-6번지 대정마을 앞 도로와 동계면 신흥리 111-1번지 장동마을 앞 도로, 북계면 반월리 44-2번지 북계면 반월교차로 지역이다. 대정마을 앞 사거리는 국도 27호

선 4차선 확포장공사 이후 과속과 신호위반이 많은 구간으로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또한 동계면 장동마을 앞 도로는 임실군에서 동계면 소재지 방향으로 내리막길과 인근 마을 앞 삼거리가 연달아 형성되어 있어서 대형차량 등의 과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위협과 불편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구간이다. 북계면 반월교차로는 국가지방도 49호선과 지방도 897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지난해 승용차와 사륜 오토바이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이후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4·19혁명 기념행사 성료

산화한 열사 숭고한 희생 정신 기려

제58주년 4·19혁명 기념행사가 19일 남원시 금지면 김주열 열사 묘역 광장에서 열렸다. 기념 행사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들과 보훈단체장, 유가족,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열사의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열사의 동상은 높이 3m(동상 2m40cm, 기단 60cm)에 청동재질로 제작됐다. 남원시는 이 땅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4.19혁명 58주년을 기념해 동상을 제막했다. 남원시는 또 열사를 추모하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9억 5천만원을 들여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추모공원에는 추모각, 기념관 등

이 들어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주열 열사는 1944년 남원시 금지면에서 태어나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 마산상고에 입학하기 위해 마산에 갔다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 김 열사는 시위 중 행방불명되었다가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류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환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민주화를 열망했던 열사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제작한 동상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키는 표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철쭉제

제24회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철쭉제가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리산 아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아래봉은 해발 1,165m로 지리산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4월말 하단부를 시작으로 5월중순 정삼까지 순차적으로 지리산을 붉게 물들이는 전국제일의 철쭉명소로써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아래봉을 찾는 등산객과 상춘객들에게 지리산이 보여주는 봄날의 비경이다. 특히, 올 해는 그동안 운봉애학회(회장 김중열) 단독으로 주관하던 철쭉제를 지리산허브밸리 민간위탁을 맡은 ㈜엔이에스티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단체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옥천골미술관, 구죽화가 그림전

순창 옥천골미술관이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그림 전'이란 주제로 '구죽화가 그림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죽(口足)화가 그림 전'은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에는 21명의 구죽화가 작품 31점이 전시된다. 구죽화가협회 회원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미술관 관계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미술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희망을 심어 주고자 기획했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경찰, 공공근로자에 간식 제공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오수지구대는 지난 18일 오수 공공근로 어르신들에게 간식거리로 빵과 음료를 제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오수가 고향인 오수지구대장(경감 이재영)은 도로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자니, 고향에서 발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나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남 같지 않다고 느껴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었다. 오수지구대장은 "고향의 차인을 책임지는 오수지구대장 자리에 있다 보니 고향 어르신들 한분 한분이 내 부모님 같고 친인척 같아 남 같지 않더라 퇴직 후에도 고향에서 어머니님과 고향 어르신들 모시고 섬기며 고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위촉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9일 의정실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할 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받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임실군의회 문흥식 의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공직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하면서 행정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김택규씨와 김학모씨가 위촉됐다. 문영두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위해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결산검사의 대표를 맡은 문흥식 의원은 "임실군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의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결산 결과는 오는 9월중에 열리게 될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